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 본격 추진

군외면에 20억 들여 ICT 활용 스마트센터·힐링하우스 건립 주민 복지·생활편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창출 기대

완도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장소·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양치유공간이 조성된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 실시계획(건축) 중간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2019년 지능형 ICT타운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확보,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에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기반이 구축된 스마트센터와 힐링하우스를 건립한다.

지난해 12월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달 건축분야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했다. 5월 건축물과 스마트케어 기반구축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 센터' 1동과 '힐링하우스' 3동이 들어선다.

'스마트 센터'는 불목리·영풍리·황진리 자연부락 12개 마을 주민의 중심 시설로 복지, 생활편의, 지역사업을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힐링하우스'는 ICT기술과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 조감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목표로 조성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중간 보고회에서 나

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슬로시티 청산도 '느림우체통' 1년 만에 개봉

60대 남편의 부부에 등 느림엽서 360통 수취인에게 발송

"결혼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 없이 서로 사랑하고 지냅니다." <어느 한 부부>

"나는 여전히 널 잊지 못하고 널을 사랑하기 힘들다." <헤어진 연인>

완도군은 "청산도 범바위전망대에 설치한 '느림우체통'에 1년간 쌓인 엽서 360통을 지난달 25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느림우체통은 아시아 첫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가 지난 2007년 처음 설치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은 청산도 여행자가 500원에 구입한 엽서에 글을 써 우체통에 넣으면 이듬해 2월 한꺼번에 원하는 주소로 보내주고 있다. 지금껏 보내준 엽서는 4000여통에 이른다.

엽서에 담긴 사연도 가지가지다.

60대 남편의 부부에, 떠나보낸 연인의

행복을 비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배달됐다.

한 취업준비생은 "1년 뒤에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직장은 구했는지 궁금하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용돈 좀 올려 달라"는 사연 대신 귀여운 그림으로 대체한 엽서도 눈길을 끌었다.

이런 내용의 '청산도 편지'가 위안을 주고 추억을 되살려준다는 평가가 나오자 올해는 섬 한가운데 자리한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장소에도 우체통 하나를 더 세우기로 했다. 청산도 풍광 사진을 배경으로 느림 엽서도 만들고 있다.

다만, 받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글씨 확인이 어려운 느림 엽서 8통은 발송하지 못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 청산도 느림우체통.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시간 연장

윤달 화장 수요 급증 대비 5월23일~6월20일 1시간 늦춰

해남 향산면에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윤달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해남군은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동안 개장(분묘)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화장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화장로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예약 기간 또한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은 4월 23일부터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면 예약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해남군 향산면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3기의 화장로와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족동산,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지금까지 화장 1603건을 비롯해 봉안당 및 자연장 안치 600건 등 해남·완도·진도 주민들의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향산면에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윤달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해남군은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동안 개장(분묘)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화장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화장로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예약 기간 또한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은 4월 23일부터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면 예약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해남군 향산면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3기의 화장로와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족동산,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지금까지 화장 1603건을 비롯해 봉안당 및 자연장 안치 600건 등 해남·완도·진도 주민들의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남도광역추모공원

"장보고대사를 찾습니다"

해남군, '장보고 한상 어워드 헌정자' 공모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은 오는 7월31일까지 '제5회 장보고 한상(韓商) 어워드' 헌정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국외에 이주해 기업을 창업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경제·문화영토 확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 한상들에게 수여된다.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정하는 상이다.

공모 분야는 헌정자(대상)를 비롯해 국회의원·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6개 부문이다.

홈페이지(www.changpogo.net)에서 '장보고 한상 어워드 규정'을 참조한 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changpogof@gmail.com) 또는 우편

으로 접수하면 된다.

완도군과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가 공동으로 헌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사한다.

수상자 성공스토리는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에 전시된다. 수상자는 2박3일 일정으로 완도를 관광하고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흥명기 M&L Hong재단 이사장과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상그룹 회장, 한창우 일본 마루한그룹 회장 등 9개국 19명이 헌정됐다.

한편, 장보고(785~846년)는 통일신라 흥덕왕 때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고,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한 장군이자 무역상이다. 중국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하며 삼각 무역을 하며 동방국제무역의 패권을 잡았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삶의 질 높여 돌아오는 농어촌 만든다

정주생활기반·일자리·교육 등 51개 핵심 과제 적극 추진 세대별 돌봄서비스 확충·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해남군은 정주생활기반·일자리·교육·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1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된 가운데 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민선 7기 핵심 현안사업과 연계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과 그에 따른 51개 핵심과제다.

먼저 세대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과 함께 가족친화 복합화시설인 땅끝가족여

울림센터 건립과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이 보건복지분야에서 추진된다.

교육·문화 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주민 평생학습 강화 확대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이 실시된다.

해남사랑택시, 청소년안심귀가택시, 1000원 버스 등 교통 복지의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 시설 확대, 어촌뉴딜 300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내실화, 미세먼지 없는 쾌

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정주기반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활성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의 판로 다각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푸드플랜 체계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스마트 팜 등 신산업 육성 등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 삶의 질 개선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은 군정의 핵심 목표"라며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부서간 연계·협력을 통해 군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